

로마서 묵상 44  
(3/25/2021, 목)

찬양: 305(405)(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9:30-10:3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한다. 30-31 절 -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의를 얻은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라고 바울은 말씀한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 구절에서 “의의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의미하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이 추구하는 구원의 의를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결국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32 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기술한다. 32 절 -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가운데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에 자만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에 의지하였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였다. 이방인들은 원래 선민도 아닌데다가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며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32 절)고 말씀했다. 바울은 이 표현을 33 절에서 인용한 사 28:16 에서 가지고 왔다. 33 절 -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인용한 “부딪칠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그분을 통한 구원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받는 길이 막힌 것이나 다름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막히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딪칠 돌”에 부딪치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한 바울의 답답함. 바울은 10 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다. 1 절 -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

게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구절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전력을 다하던 바울이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가진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2 절). 이스라엘의 열심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율법 준수에 온 힘을 다하는 열심이었다. 그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었고, 더 나아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 때 올바른 지식은 구원과 관련된 바른 지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바른 복음적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3 절에서도 기술되어 있다. **3 절 -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바른 복음적 지식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다양한 종류의 돌에 부딪칠 수 있다. 우리는 나의 노력과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고 애쓰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나 자신이나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삶의 법도를 주셨고 질서를 허락하셨는데,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돌에 부딪침을 경험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듯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갈 때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앎에 바탕을 둔 열심,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맹목적 신앙을 주의해야 한다. 바르고 성숙한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아는 것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점점 자라나는 신앙이다. 바른 신앙은 열심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른 열심을 강조한다.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고전 9:26)라고 말씀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지를 다시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도전한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법도와 뜻대로 살며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좇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3.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국내의 총격 살인이 중단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총기와 관련된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